

# 임창용 '더 높은 곳을 향하여'

## KIA '베테랑의 힘'

'터닝 포인트'를 찍은 KIA 타이거즈의 임창용이 또 다른 목표에 도전한다. 임창용은 6번째 선발 등판에 나섰던 지난 6일 넥센 타자들을 6이닝 2실점으로 막았다. 사구 하나를 기록했지만 8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는 등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결과는 7-2, KIA의 승. 임창용이 1-2에서 물러난 뒤 8회말 안치홍의 역전 결승 홈런이 나왔다. 임창용은 비록 승리는 챙기지 못했지만 팀 승리의 주역이 되면서 모처럼 환하게 웃었다. 또 이 경기로 임창용은 삼성시절이던 2007년 8월 21일 이후 4034일 만에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했다. 임창용에게는 아시아게임 휴식기가 '터닝 포인트'가 됐다.

AG 휴식기 체력·포크볼 단련 휴식 후 첫 등판서 2실점 호투 다음 등판엔 QS·승 동시 노려 기록 새로 쓰고 가을잔치 견인

지난 8월 18일 시작된 아시아게임 휴식기 전 임창용은 '위기의 선발'이었다. 8월 1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5이닝 2피안타 5사구 6탈삼진 1실점의 피칭을 하며 세 번째 선발 등판 만에 승리투수가 됐지만, 이후 두 경기에서 임창용은 6.2이닝을 버티는 데 그쳤다. 무엇보다 두 경기에서 5개의 피홈런을 허용하며

서 16실점이나 남겼다. 선발 위기 속에 휴식기를 맞은 임창용은 '선발의 덕목'을 생각했다. 이닝을 파고든 임창용은 체력 훈련과 포크볼로 답을 찾으려고 했다. 강도 높게 체력 훈련을 소화한 임창용은 포크볼로 변화도 했다. 휴식기 이후 첫 등판에서 임창용은 102개의 공을 던졌다. 직구 최고 스피드는 145km. 5회를 잘 넘긴 임창용은 서건창의 2루타로 시작한 6회 무사 1·2루까지 몰렸지만 무실점으로 마지막 이닝을 막았다. 반포크성 그림으로 잡던 스플리터를 크게 벌려 잡은 게 주효했다. 큰 각의 포크볼로 상대의 스윙을 유도하면서 더 많은 이닝을 풀어갈 수 있었다. 임창용은 시즌 첫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한 뒤 '휴식기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이번 계기로 해서 더 좋은 모습 보이겠다. 한 번인데 만족하지 않았다'며 더 높은 지점을 올려봤다. 임창용은 올 시즌을 준비하면서 많이 구사하지 않았던 커브에 공을 들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포크볼을 꺼내 들었다. 여전히 야구 욕심은 임창용을 바빠 움직이게 한다. 선발 역할을 맡은 후 임창용은 5이닝을 목표로 도전을 시작했고, 승리라는 고지에도 이르렀다. 이후에는 퀄리티스타트를 언급했다. 위기의 순간을 퀄리티스타트로 뒤집은 임창용은 이제 '퀄리티스타트와 승'을 동시에 겨냥한다. 휴식기를 잘 활용한 베테랑이 자신의 기록을 새로 쓰고 팀의 '가을 잔치'를 이끌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야호~" 탬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이 11일 2018 메이저리그(MLB)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홈경기 9회말 2사 1루에서 끝내기 투런 홈런을 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지만 '끝내주는 밤'

생애 첫 MLB 끝내기 홈런 클리블랜드전 9회 2사 극적 승 좌완 투수 상대 첫 홈런도

최지만(27·탬파베이 레이스)은 자신감이 넘쳤다. 메이저리그에서 좌투수를 상대로 단 1안타(20타수)를 칠 정도로 약했지만, 기회만 오길 기다렸다. 그리고 좌완 마무리를 상대로 끝내기 홈런을 쳤다. 최지만은 11일 열린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홈경기, 4-5로 뒤진 9회말 2사 1루에서 상대 좌완 마무리 브래드 핸드의 시속 151km 직구를 받아쳐 오른쪽 담을 넘어가는 투런 이치를 그렸다. 6-5 역전승을 만든 끝내기 홈런이었다. 경기 뒤 최지만은 MLB닷컴과 인터뷰에서 "내 생애 처음으로 친 끝내기 홈런이다라며 "타석에 들어서기 전 '기회가 주어지면 팀에 승리를 안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다. 정말 업

청난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다. 경기 전까지 최지만은 좌투수를 상대로 20타수 1안타에 그쳤다. 메이저리그에서 친 홈런 14개는 모두 우투수를 상대로 뽑았다. 그러나 개인 통산 15번째이자, 시즌 8번째, 생애 첫 끝내기 홈런은 좌완 마무리 핸드를 상대로 쳤다. 케빈 캐시 탬파베이 감독은 "최지만이 엄청난 홈런을 쳤다. 의미 있는 승리"라고 최지만을 칭찬했다. 2010년 시애틀 매리너스와 계약하며 프로 생활을 시작한 최지만은 2015년 시즌 종료 뒤 볼티모어 오리올스로 이적했고, 2016년 볼5 드래프트로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에 입단했다. 2016년 에인절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에 데뷔한 최지만은 2017년을 뉴욕 양키스에서 보냈고, 2018시즌은 밀워키 브루어스에서 개막을 맞았다. 최지만의 올 시즌 성적은 49경기 타율 0.275(153타수 42안타), 8홈런, 27타점이다. 탬파베이에서의 성적은 37경기 타율 0.285(123타수 35안타), 6홈런, 22타점으로 시즌 성적보다 훨씬 좋다. /연합뉴스

## '형' 만한 아우들

18세 이하 청소년 야구 대표팀 대만에 7-5 승 ... 亞 정상 탈환

한국 18세 이하 청소년 야구 대표팀이 아시아 정상 탈환했다. 김성용(아탑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10일 일본 미야자키 산마린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 12회 아시아야구연맹(BFA) 아시아 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결승에서 대만과 연장 10회 승부차기 접전 끝에 7-5로 승리했다. 직전 대회에서 3위에 그친 한국은 예선에서 일본을 3-1로 꺾은 데 이어 결승에서는 대만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한국은 1996년, 2003년, 2009년, 2014년에 이어 통산 5번째 아시아 정상에 오르며 일본과 함께 최다 우승국이 됐다. 한국은 애초 일본과 우승 트로피를 다투는 것으로 예상했으나 일본이 대만에 1-3으로 패하며 결승전 상대는 대만이 됐다. 한국은 대만과 통산 5번째 결

승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고 대만과 결승전 상대 전적을 4승 1패로 만들었다. 정규이닝(9이닝)에서 3-3으로 승패를 가리지 못한 두 팀은 대회 규정에 따라 연장 10회초부터 무사 1·2루에서 승부차기로 승부를 가리게 됐다. 한국은 윤수녕(대전고)의 보내기 번트 타구를 잡은 대만 투수 권위타가 1루 송구 실책을 저지른 덕분에 무사 만루의 찬스를 맞았다. 김창평(광주일고·SK 2차 지명)과 김현민(경남고·한화 2차 지명)의 잇따른 스윙스 번트가 대만 수비를 혼순간에 무너뜨렸다. 한국은 안타 하나 없이 번트 3개로 대만의 연이은 수비 실책을 유도하며 4점을 뽑아내고 승기를 잡았다. 한편 김창평은 타점 1위(11개), 득점 1위(11개)와 함께 대회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 날개 단 손흥민 몸값 '쑥~'

AG 금에 근대 리스크 해결... 예상 몸값 첫 1억 유로 돌파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게 된 손흥민(26·토트넘)의 예상 몸값이 처음으로 1억 유로를 넘어섰다. 국제스포츠연구센터(CIES) 축구연구소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기준 손흥민의 이적가치는 1억 230만(약 1338억원) 유로다. CIES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스위스 뇌사텔대와 공동으로 설립한 독립연구센터다. 이 연구소는 선수와 소속팀 성적, 나이, 포지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수들의 이적가치를 산출하고 있다. 1억230만 유로는 CIES 축구연구소가 손흥민의 이적가치를 분석한 이후 최고 금액이다. 손흥민은 지난 2015년 이적료 3천만 유로에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으로 이적했다. 예상 이적가치이긴 하지만 3년 만에 몸값이 3배 이상 급등한 것이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 10위에 오르는 등 몰론 활약으로 나날이 주가가 오르고 있다. CIES 축구연구소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손흥민의 예상 이적가치는 6680만 유로였는데 올해 들어 꾸준히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전후로는 한화 1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업데이트에서는 9980만 유로였던 것이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후인 10일 업데이트에서 1억 유로를 돌파했다. /연합뉴스